

안중근의사 순국109주기 안중근정신실천 ·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100주년 기념

안중근장군 민족사랑실천 한·중 웅변대회

安重根將軍 和平精神實踐 中韓雄辯大會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상해위원회가 주최하는 '안중근 109년 국민화합평화대행진 웅변대회'는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 '보통사람들의 안중근 운동'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안중근 운동의 대중화를 위함입니다. 109년 전 일본의 한국침략을 막고 일본의 대륙침략 야욕을 전 세계에 고발하기 위해 목숨을 던졌던 안중근 장군의 민족사랑 정신 속에는 동포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동포들의 단결이 국권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한 첩경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안중근 장군의 하얼빈 총성과 여순재판정에서의 함성이 울린 지 10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9년 전 청년 안중근이 그토록 몸을 던져 갈구했던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포들의 단결이 잘 되고 있는지 되돌아 볼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안중근 장군 순국 109주년, '국민화합평화대행진 웅변대회'가 마련되는 소박한 취지입니다.

- 주 최 :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상해위원회 대한민국최고연설선발중앙회
- 주 관 : 안중근평화재단청년아카데미 웅변위원회, 히어로 역사 위원회,
대한민국최고연설선발중앙회
- 후 원 : 국가보훈처, 주상하이한국총영사관,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 경기도청,
경기도 교육청, 주상하이한국문화원
- 장 소 : 주상하이한국문화원 3층 아리랑 홀
- 시 간 : **2019년 3월26일(화) 13:20**

안중근 장군의 독립운동 정신

첫째, 국가독립입니다.

국권회복을 위해, 안중근 장군은 의병부대를 이끌고 국내진공작전(國內進攻作戰)을 전개했으며, 대한민국(大韓國) 의병(義兵) 참모중장(參謀中將)의 자격으로 하얼빈에서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적(國敵)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습니다.

둘째, 사회정의입니다.

민권과 자유가 신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안중근 장군은 백성들에게 폭정을 일삼는 정의롭지 못한 국가권력은 물론, 정교(政敎)분리를 주장하며 독립운동마저 파문으로 금했던 종교권위에 맞서 과감히 항거하였습니다.

셋째, 동양평화입니다.

동양평화를 위해, 안중근 장군은 한국에 이어 만주까지 침략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으며, 옥중에서 순국 직전까지 [동양평화론] 을 저술하여 동양평화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